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교회 시대 이야기를 마치 복음서 비유들처럼 스토리텔링 식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더더욱 속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sup>1</sup>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sup>2</sup>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sup>3</sup>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sup>4</sup>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sup>5</sup>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3:1-5)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The Word*)은 주님과 천국,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응(相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겉뜻(*letter sense, literal sense*)과 속뜻(*internal sense, inner sense, 아케이나 arcana, 秘義*)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창세기 11장까지는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두

그리고 겉뜻, 속뜻에 관해서는 ‘사람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듯 말씀도 겉뜻과 속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사람의 육에 영이 담기듯 말씀의 겉뜻에 또한 속뜻이 담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이유는 자연계가 영계를 다이렉트로 접촉,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영과 육으로 디자인하신 이유도, 주님이 신성 그 자체가 아닌 인성을 입고 오신 이유도 역시 같습니다.

또 ‘성경 66권 중 속뜻이 있는 성경을 말씀이라 하며, 속뜻은 오직 신(神)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에만 들어 있습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약 문학서들과 신약 서신서들엔 속뜻이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겉뜻을 말씀의 육이라 하면, 속뜻은 말씀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즉 겉뜻으로만 매우 친숙한

창3:1-5, AC.190-206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오늘 이 선악과 본문을 그 속뜻으로 한번 살피고, 그 속뜻이 우리가 알던 겉뜻과 얼마나 다른지, 정말 영과 육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엄청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다면 그 차이, 그 전혀 다른 뜻에서 어떤 메시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이 시간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속뜻으로 읽고자 하는 쉽지 않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빛 환히 비추사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고로, 그러나 동일한 본문을 천사들은 속뜻으로 읽으며, 말씀의 속뜻은 주님의 본심, 주님의 진심이어서 사람이든 천사든 말씀을 속뜻으로 읽을 때, 주님과 하나 됨, 결합이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결합함은 곧 주님의 사랑과 지혜, 권능과 능력 안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속뜻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중요한 표현들을 좀 살핀 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초 성찬 있는 날이어서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육이 있으면 영이 있고, 겉사람이 있으면 속 사람이 있으며, 육과 영 사이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감각과 합리, 이성, 지성, 그리고 감정, 애정(*affection*), 감성, 느낌, 기분이 있습니다. 의지(*will*)가 있으면 이해(*understanding*)가 있으며, 심장이 있으면 폐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보고(視) 듣고(聽) 맛보고(味) 냄새 맡고(嗅) 만지는(觸) 오감(五感)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홍수 전 인류인 태고인들에게는 있었던 퍼셉션(*perception*, 주님의 신성인 선과 진리를 별다른 학습 없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홍수 후 인류인 우리에게 이 퍼셉션 대신 허락하신 양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내면의 세 단계가 있어 열린 단계만큼 사후 해당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즉 첫 번째 단계만 열린 사람은 일층천인 영적 자연적 천국으로, 두 번째 단계까지 열린 사람은 이층천인 영적 천국, 세 번째

##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단계까지 열린 사람은 가장 내적 천국인 삼층천 천적 천국으로 배정됩니다.

참고로, 여기 영적이다 천적이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 영적이요 천적이어서 그런 건데, 주님의 신성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천국을 영적 천국, 주님의 신성을 천적으로 받아들이는 천국을 천적 천국이라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일단 머리로 받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가슴으로 반응하는 걸 영적이라 하고, 그런 거 없이 듣자마자 바로 가슴으로 반응하는 것을 천적이라 합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한테는 오직 주님만 들어가시는 데가 있으며,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셨는지는 가장 지혜로운 삼층천 내적 천사들조차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네, 이런 존재가 바로 사람, 곧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살핀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뱀’은 이처럼 주님이 사람 안에 조성하신 많은 것 중에서 ‘감각’ 또는

‘감각 영역’을 말하며, 특히 오늘 본문의 뱀처럼 감각의 역기능, 곧 주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감각을, 주님의 것보다 인간의 것을 더 신뢰하라는 속삭임을 말합니다. 감각은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아와 이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대를 살았던 태고인들은 뱀이 땅에 착 달라붙어 다니는 것처럼 사람의 감각 역시 사람의 육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한 것입니다.

앞서 태고인들은 장구한 어떤 실제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체로 축약, 표현하는 것을 무척 즐겼고,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도 이런 이야기체로 서술된 것임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고유 본성, 자아를 말합니다. 사람의 자아 역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처음 주님이 어루만져주신 새 자아를 가리켜 앞장 23절에서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한 것처럼

창3:1-5, AC.190-206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럼, 태고교회 두 번째 후손인 이때만 해도 아직 순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3장 첫 부분 세 번째 후손부터는 역기능을 시작, 감각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아 역시 이제 예전 자아가 아닌 역기능을 하는 자아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태고교회의 선조들은 본문의 뱀이 하는 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너희가 선조들로부터 받아 믿고 있는 교리들, 신앙의 선과 진리들이 과연 사실인지, 진리인지 이성적으로, 논리적, 과학적으로 확인해 봤니?’ 하는, 이런 생각조차 참람하다 여겨 크게 두려워하며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신앙과 관련된 선과 진리, 곧 주님의 신성을 말하며,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선조들이 주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인 퍼셉션으로 밝혀 잘 정돈, 후대에 잘 전해주어 내려오던 주님의 신성에 관한 명확한 계시들을 사람의 감각과 세상 지식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곧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지혜와 사랑, 선과 진리 등 주님의 생

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주님의 신성을 사람의 감각과 세상 지식, 경험으로 판단, 그 맛과 틀리다 및 그 선하다 악하다를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의 입종 순간을 영상으로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안 찍히더군...’ 식으로 말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늘을 향한 창문이 닫혀 그전까지는 부족함 없이 공급받던 하늘의 지혜와 지성이 끊어지며, 그 결과 짐승 수준의 지적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데 주님은 사람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후손까지는 그래도 ‘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자꾸 주님 아닌 자아를 향하는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았던 반면, 이 세 번째 후손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신성을 정돈한 교리들을 ‘제대로 꼼꼼히 검사해 봐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지경이 된 것이죠.

##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여기 5절까지가 세 번째 후손이고, 6절부터는 네 번째 후손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6절 끝에 나오는 ‘**그도 먹은지라**’의 ‘**그**’는 남자, 곧 인간의 이성을 말하며, 인간 이성 역시 역기능으로 기울어 감각의 말에 솔직한 자아의 결정에 덜컥 동의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즉 이성이 건강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비록 자아가, 본성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어도 ‘**안돼!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의심하면 안돼!**’ 하며, 상황을 바로 잡아야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심지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해석이지요? 모태신앙인 저 역시 거의 육십여 년 평생 이 본문에 나오는 뱀도 진짜 뱀이요, 여자도 진짜 사람 여자 하와요, 선악과도 진짜 그런 나무요, 아담도 진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겉뜻, 겉 글자의 뜻으로만 읽으면 재미는 있고 신비롭기는 하나 어딘가 좀 너무 가볍고 뭘 이런 거, 무

슨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걸로 인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 자신도 좀 그랬고, 특히 남에게 전도하거나 설명할 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어딘가 좀 가볍고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속뜻으로 읽으니 다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내적 관찰의 기록이요, 초대 교회인 태고교회의 장구한 변질의 역사와, 그 결과 나중에 ‘**대홍수**’로 표현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대하드라마를 장엄한 신적 관점, 신성한 톤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느껴집니다.

주님의 관심은 인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류 역사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무슨 뉴스나 다큐 다루듯 하시는 것보다는 인류의 내면 상태의 변화를 추적, 관리하시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시공간의 나라가 아니라 상태와 그 변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님에 대한 영들의 상태로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들은 천국에 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들은 지옥에 갑니다. 각 사람의 영의 상태는 각 사람의 지상 삶으로 결정됩니다.

창3:1-5, AC.190-206

###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속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천적 인간이었던 태고 교회도 시간이 흐르자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과 두 번째 후손에 이르러서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 여자, 곧 새로운 자아, 기존 자아를 업그레이드시켜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인 이 세 번째 후손에 이르자 ‘뱀’ 같은 생각, 곧 ‘주님을 사랑한 선조들이 주님이 주신 피뉘침이라는 영적 통찰력으로 잘 정리 정돈한 주님의 신성 교리들이어도 우리의 감각과 삶의 경험 등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검증해 봐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뱀 같은 생각에 인간 본성인 자아가 귀가 솔깃, 귀 기울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나이인 45억 년 중 태고교회가 언제 시작,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담에서 시작, 므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시대가 실제로는 얼마나 장구한 기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이름들 및 예를 들어,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는 표현들 역시 모두 상응이요 속뜻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의 일들

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주님은 그러나 보다 내면적인 것들, 곧 인류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인류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초 태고교회 후손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창세기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식대로 풀어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다시 말해, 눈은 천국을 향해도 발은 지상을 딛고 있어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주제 안 좋아해.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아이템을 하나 잡아봐..’

‘수도원 같은 거, 계 중에서도 가장 센 봉쇄수도원 같은 거 하나 차려서 사람들에게 계속 주목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것도 아주 명예로워 보이고 괜찮겠어...’

‘천국 얘기도, 무슨 영성 얘기도 다 일단은 합리적이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는 좀 곤란하지...’

## ‘뱀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다음 주에 다룰 내용 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에 나오는 ‘벌거벗음’에 대하여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두 종류의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 벌거벗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선조인 창2: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에 나오는 벌거벗음입니다. 하나는 순진무구함이요, 다른 하나는 창피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주님의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노센스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님 금하신 선악과를 범한 이들은 모든 주님의 것을 잃어버린 나머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게 되며, 그 본래 모습인 악하고 거짓된 모습, 곧 새까맣

고 추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벌거벗되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벌거벗을수록 더욱 아름답습니다. 벌거벗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취 나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한사코 숨으려 하고, 가리려 합니다. 벌거벗어봐야 새까만 자아, 악취 나는 정말 보기 흉한 괴물 같은 자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듭남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각에서부터 시작, 본성과 자아, 이성과 합리 등은 우리 영, 우리 속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게,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의 신성의 나라, 주님의 선과 진리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일체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소리, 그 유혹과 부추김에 귀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반짝반짝 초롱초롱들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